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를 통해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예병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이 작은 섬은  
소록도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애환이 깃든  
사연 많은 섬이죠.

소록도는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시작하여

1941년에는 소록도에 모두 6천 명이  
모여 살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많이 줄어서  
약 600여 명이 소록도에 살면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어떤 병일까요?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전염성  
질환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

살이 썩고 뼈가 녹아서  
손과 발, 코와 입 등이

뭉그러지거나 없어져서  
오래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센병은 신체의 일부가  
변형이 생기므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적었던 시절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직후  
유럽 사회에 크게 유행하면서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전국적으로 곳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마련했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소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수용소 중 하나인 소록도가  
문학작품에 등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센병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감염병입니다.

이 파피루스가 언제  
작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대략 기원전 약 1500년~24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인도에도 기원전 약 600년경에  
한센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유럽 최초의 환자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거쳐  
인도로 쳐들어갔다가 후퇴한 직후에

최초의 한센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원전 1세기에 작성된  
그리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5세기경에

한센병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흔적이 발견되지만

정확한 전파경로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책에는 한센병이 많이 나오고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  
'나병'이라 하는 것이

현재의 나병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은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때 작성되었고

한센병은 노르웨이 학자 한센이  
1873년에 나균을 발견하면서

'이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만 한센병으로 하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이라 하려면 세균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성경책은 의학지식이 일천하던 시기에 증상만 보고 쓴 것이므로

오늘날의 한센병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피부질환에 대해서도 한센병

즉 **Leprosy**(레프로시)라는 영어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1978년에 영어로 발행된 성경책에서는

'레프로시'라는 단어 대신 감염병을 의미하는

**Infectious Disease** (인펙셔스 디지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표준새번역 한글성경에서도 '문둥병'이라는 단어 대신

'악성 피부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간다'와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한센병에 대한 공포를 많이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세기에 샤를마뉴 대제는

한센병 환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라는 칙명을 내렸는데

이것은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몸에 끔찍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환자들을 마을에서 몰아내 환자들끼리 모여 살게 했는데

환자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치료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죽을 날을 함께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을 성서에서 '레프로시'라 하고

중세 말 이후 세워진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를 '레프로사리움'이라 하는데요.

이런 수용소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이들을 보살피는데 평생을 바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셨으므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를 짓는 등 숙식을 해결해 가며

어느 정도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한센병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라자루스인데

그 이름을 딴 '성 라자루스 수도회'는

특히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 또는

한센병 환자 수용소라는  
뜻을 지닌 레프로사리움은

초기에 격리가 목적이었지만

박애로운 수도사들이 있었기에

죽기 전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센병은 특히 십자군 전쟁 직후  
맹위를 떨쳤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  
병을 얻은 병사들은

신성한 전쟁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한센병이 생기면  
마을에서 쫓겨나곤 했습니다.

한센병으로 쫓겨난  
십자군 전쟁 참전 군인들은

라자루스 수도회가 관리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라자루스 수도회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 외에

전쟁에서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종의 군사적인 목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군이 한창이던 12세기에  
라자루스 수도회의 활동은

한센병 환자 시설 관리에  
큰 역할을 했고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유럽에서 병원 설립 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중세 말엽부터 맹위를 떨친 한센병은  
몽골군이 유럽으로 쳐들어올 때 전해진

페스트에 의해 한센병이 쇠퇴할 때까지

유럽인들에게는 가장 공포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더 흘러 제국주의와  
대항해시대를 맞이한 후에도

한센병은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  
사라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듯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의학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므로

레프로사리움에서도 환자를

환자답게 대해줄 수 있는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병원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한센병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병원에 해당되는 기능을

일부라도 행할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되었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수용했던 것은  
중세 말기에 공포의 대상이어서

피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전염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이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신 한하운 님의 시를 읽노라면

마음이 싸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한센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자도 많이 줄었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개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전염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전파력이 없어지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한센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점점 환자가 줄고 있음으로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더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프랑스 출신의 폴레로가 제창하여

1954년에 1월 마지막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폴레로는 환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1940년대부터 한센병 환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호소력이 강한 글과 행동으로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태도 변화에 좋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1946년에 한센병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Order of Charity (오더-오브-체리티)** 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이것이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라울 폴레로 재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한 그는  
197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센병 낫을 제정하고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당 서기에게

폭탄 하나 제조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부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각 나라에  
수많은 재단이 설립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이 거의 해결되어 가는

질병이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센병 환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염력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면  
적어도 5년간은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감염되었더라도 병의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변형된 부위가  
원상태로 복구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조기에  
진단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20세기에 개발된 여러 항균제들 중에  
나균에 특효를 지닌 것들이 있으므로

치료가 어려운 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센병은 한센병을 일으키는 세균,

즉 나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렇다면 나균은  
어떻게 발견된 걸까요?

이 세균은 1873년에 노르웨이의 한센이

한센병 환자의 결절에서 이 세균을  
처음 발견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한센은 여러 환자에서  
이 세균을 발견하여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한센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센은 1879년에 자신이 발견한 세균을

'나이저'라는 임질균 발견자인  
학자에게 전해주었는데요

나이저는 이 미생물이 한센병의  
원인균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한센병 연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저는 임질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발견하여

과거에 매독으로 알려져 있던 성병이

매독과 임질이라는 두 가지 병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초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한센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만큼 무서워  
천형이라고 불렀던 한센병이지만

지금은 치료법이 개발되어  
완쾌가 됩니다.

하지만 병보다 환자들에게  
아픔이 됐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죠.

한센인은 세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한 번 죽고  
검시대 위에서 두 번째 죽고

땅에 묻히지 못하고  
화장터에서 세 번째 죽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한센병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이고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센병의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역사를 통한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의 변화를 느끼셨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